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사기 특별단속, 총 편취금액 213억원

□ 경찰청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사기 증가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0일간(3.23~5.31)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함.

○ 특별단속 결과 고의사고, 피해과장, 자해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는 총 533건이며, 보험사기범은 2,292명인 것으로 집계됨.

□ 보험종별 검거인원 현황은 손해보험사기가 1,995명으로 전체 가운데 87%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, 생명보험사기가 102명(4.5%), 건강·고용·산재 등의 사회보험사기가 95명(8.5%)인 것으로 나타남.

○ 특히 손해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사기가 1,805명으로 90.5%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의사고, 피해과장 등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음.

□ 특별단속을 통해 밝혀낸 보험사기 편취금액은 총 213억원으로 손해보험이 112억원, 생명보험 52억원, 사회보험 49억원의 순으로 나타남.

○ 사기범 1인당 편취금액으로 환산 시 생명보험은 5,100만원, 사회보험 2,500만원, 손해보험은 570만원이며, 정액지급방식인 생명보험이 가장 다액이었고 자동차보험사기가 주종을 이루는 손해보험사기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음.

□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 조사팀에서 제공한 범죄정보로 보험사기범 880명을 검거하였으며, 관계기관(경찰청·금감원·건강보험공단)의 공조로 35명이 추가 검거됨.

○ 이에 경찰청은 보험사기를 2009년 연간 추진계획인 '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 점단속대상'에 포함시켜 연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, 보험사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여 수사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임.

(경찰청, 보험사기 특별단속, 2,292명 검거,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, 6/2)